

초기 힐링담론의 자기통치프레임과 담론효과*

김은준 대전보건대학교 교양과 조교수**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 각 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힐링담론에 주목하여 초기 힐링담론이 자기통치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강조했으며, 그것은 수용 국면에서 어떤 담론효과를 보이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힐링담론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탈정치화된 개인의 범주로 국한시키며 성찰적이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성찰과 성장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대체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개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규범이자 윤리로 작용한다. 수용자들은 힐링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을 권능화하고자 한다. 반면 지배적 수용담론 내부에는 실질적 위로의 부재를 비판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며, 자신들을 문제적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등의 균열과 특이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힐링이라는 구체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적 거부이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질서에 대한 근본적 저항은 아니다.

KEYWORDS 힐링담론, 통치성, 감정의 정치, 신자유주의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3015)

** eunjune@daum.net

1. 들어가며

2011년을 기준으로 ‘힐링’을 모토로 내세운 에세이 형식의 자기계발서는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후 2013년을 전후로 최고조에 이르렀고 지금까지도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며 각종 콘서트나 공연, 전시,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힐링’은 근래 한국사회의 문화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대한 키워드로 기능해 왔다.

여타의 수많은 힐링담론들이 저마다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들의 근본 정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힐링(healing)’이라는 단어 자체는 병든 사람을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놓는다는 치료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문화키워드로 작용하는 ‘힐링’의 의미는 이와는 좀 달라 보인다.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힐링’은 근본적 치료보다는 일시적 위로에 가깝고 심리적 차원에서 출발한 듯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매우 경제적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언뜻 보아 유행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 ‘힐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인다.

한때 우리 사회 문화현상을 마치 블랙홀처럼 흡수했던, 그리고 여전히 그 위세가 사그라들지 않은 ‘힐링’현상에 대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시작하려 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었고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힐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가? 힐링이 진정으로 필요하기는 한 걸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학술 담론들을 통해 힐링현상이 신자유주의적 배경에서 추동되어 이 시대의 주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송현·안관수, 2013; 심보선, 2013; 장민우, 2013; 이은아, 2014 등)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힐링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새로운 함의들을 제공할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들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위 질문들에 대한 즉각적 해답을 얻기보다는, 이러한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힐링담론을 좀 더 지속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분명 담론의 주체인 우리는 담론의 대상으로 다시 다뤄지고 또다시 주체의 위상을 회복하는 역사적 과정들 속에 놓여있다. 우리를 담론의 대상으로 다루기에 거침이 없었던 한 현상에 대하여 익숙함보다는 좀 더 낯설음으로, 혹은 새롭게 여기고 바라보는 것은 주체로서의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정치들에 대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힐링이 대세가 된 초창기, 즉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여러 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이 현상을 파급시켰던 담론들에 다시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초기 힐링담론은 어떠한 세부 담론들을 생산해내었고 이것은 자기통치전략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강조했는지, 실제로 그것은 어떤 수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다뤄보고자 하였다. 반복이 되겠지만, 그 이유는 우리 삶과 현실을 구성하는 현상으로서의 담론 실천이 어떤 맥락들을 근거로 형성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성찰적 방안들을 가정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근래 한국사회는 무언가 극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유래 없는 경제난, 소통의 부재, 줄지 않는 자살률, 구조적인 빈익빈 부익부 심화,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여전하며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계층의 간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은 이제 오히려 평범하게 인식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앞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역시 팽배해진 지 오래다. 서민의 삶은 어려워졌지만 재벌의 삶은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자본의 영속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작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치의 테크놀로지들을 더욱 구체화하여 적용한다.¹⁾ 인적자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를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큰 덕목이자 존재 양식이다(Gordon, 1991; Treanor, 2005).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대한 요구, 경제적 가치에 의해 구분되는 행복한 삶에 대한 신화, 성공 그 이면으로 조장되는 불안에 대한 연습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찌면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는 상처받고 병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주체로서의 개인들. 결국 ‘힐링’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배경들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사회의 불균형들이 실제로는 개인의 책임으로 진단되며 강요되는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그 출발점이 놓여있다. 그런 점에서 힐링열풍은 인간을 대상으로 보다 미세한 수준에서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 특정한 양상의 권력과 지배의 장치들을 통찰할 시점을 제공한다.

1) 자유를 기제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 통치를 논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가 강조됨에 따라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국가의 권력 같은 거대 권력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통치는 권력의 양상이 국가에서 시민 내지는 개인으로 옮겨옴으로써 권력의 총량이 이동한다는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통치의 테크놀로지로서 힐링을 다루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겠으나 국가 권력의 유효함을 여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들도 힘 있게 전개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일례로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을 통치성과 자유의 차원에서 풀어낸 사카이 다카시(酒井隆史, 2001/2011)는 시민사회의 쇠퇴와 국가에 의한 사회의 포섭을 언급한 다양한 자료들을 다루면서 실제 시민사회의 쇠퇴와 함께 다원적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의 상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상승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 국가의 관리통제 기능을 통해 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식의 통치 테크놀로지가 출현할 수 있다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성을 제시한다.

2. 감정의 정치학, 힐링

오늘날 치유담론을 비롯해 긍정심리와 같은 각종 감정 정치가 작동되는 분야에서 이론적 토대가 되는 대표적 개념은 푸코의 통치성 이론이다. 통치(Governmentality)는 일련의 장치나 지식을 발전시킨 형태로 존재하면서 개인이 자신과 맺는 주체의 윤리를 활용하여 행사되는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국가의 관리뿐 아니라 가정, 자아, 마음의 범위를 총괄하면서 자기통치와 타자통치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Foucault, 1991; 2004/2011; 2001/2007). 또한 통치성은 행실을 통솔한다는 면에서 특정한 목적 하에 타인의 행위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실을 통솔하려는 이성적인 프로그램이나 전략, 전술 등 모든 것을 개념화하는 방식(Foucault, 1991; Rose, 1989; Miller & Rose, 2008)이라 할 수 있다. 즉 권력과 지배의 문제를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개개인의 차원,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사고, 인식, 마음, 행동거지에까지 확장시켜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통치성은 오늘날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치 합리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적합한 지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통치성 이론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통한 지배이다. 통치성 개념은 1990년대 이후 니콜라스 로즈에 의해 심리학을 비롯한 전문지식의 자기통치적 활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며 확산된다. 그는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그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을 알게 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이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Rose, 1999)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통치성의 이론의 확산을 이끌기도 하였다.

본 연구 역시 푸코의 통치성 이론에 기대어 있다. 그러나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개인으로서의 삶뿐 아니라 경제적 주체로서의 삶을 기획해 나아가려 할 때, 자신의 필요를 알아채고 그것을 위해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을 통치한다는 것은 과연 순수한 자유의 기능이라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시대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누리는 상태라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일종의 ‘기획’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신자유주의 질서가 팽배한 시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유’는 오히려 자신을 점검하고 계발하고 끝없이 발전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라는 주문이 실현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자기계발담론들도 다를 바 없다. 적극적 계발이든, 따뜻한 위로든, 결과적으로 타깃으로 잡고 있는 대상은 자기진단과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유의 의지를 가진 개인들이며 그 작동 범위는 개인들의 일상

화된 삶 그 자체다. 다만 그 메시지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해 보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²⁾ 왜 힐링이 필요한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진정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다독여서 다시금 치열한 삶의 전선 속에서 각자 최대의 효용을 발휘하는 개인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시대의 자유는 구속의 다른 표현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자유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 통치는 마음의 작동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본 연구는 ‘힐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으로 ‘힐링’이 가진 감정 정치학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한다. 사람의 지쳐있는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며 공감해주고 다시금 사회와 화해하도록 이끌어내는 ‘힐링’이라는 이름의 전략 역시 본질적으로 감정을 가진 평범한 인간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한다. 현재 ‘힐링’을 내세운 문화현상들은 상처 입은 개인의 스토리를 전제로 하며 이들의 문제적 징후들에 대해 공감전략을 활용한다. 당신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위로하고 치유해주겠다는 공감전략은 ‘힐링’이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사는 단순한 기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연유로 ‘힐링’은 다른 문화적, 심리적 키워드들 이룰테면 행복, 소통, 화해 등과 같이 삶의 보편적 가치를 내포하는 용어들과 결합능력이 뛰어났다. ‘힐링’은 적극적인 상담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넓은 적용범위와 진화 가능성을 가진 키워드로서 이 시대에 지속가능한 담론 권력으로 적극 활용되었다.³⁾

그렇다면 힐링의 감정 정치는 어떠한 양상으로 우리 곁을 파고드는 것일까? 감정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의 감정은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구조들과 맞물려 서로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김찬호, 2014) 위로, 치유, 행복 등과 같은 언표들 역시 개인의 단위를 넘어 사회문화적 조건과 구조들 속에서 상대화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심보선(2013)은 힐링현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삐 풀린 자본주

2) <심리정치>의 저자 한병철(2015) 역시 본 연구자와 같은 맥락의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우울증이나 소진증후군과 같은 심리적 질병은 자유가 직면한 깊은 위기의 표현이다. 즉 그것은 오늘날 자유가 도처에서 강제로 역전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병리학적 표징인 것이다’는 말로 신자유주의시대의 자유는 오히려 강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한병철, 2015, 10쪽).

3) 실제로 ‘힐링’은 경제적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의 대상으로서, 가장 효과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힐링 관련 브랜드 출원 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시사저널 2012.11.21), 경기 불황에서도 국내 외 소비시장에는 ‘힐링’ 상품이 특수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KOTRA, 2012).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힐링 산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 시장 자체가 너무 커지면서 ‘너 아플 거다’라는 걸 부추기는 면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12.7.5)과, 현대의 힐링은 결국 상업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며, 개인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기는 배후에는 베스트셀러나 기업교육시장 등을 형성하기 위한 상업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Ehrenreich, 2009/2011)이 그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힐링’ 현상 기저에는 결국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고자 하는 정치의 동학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의의 질주가 가져온 불행에 대한 처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통치 효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힐링의 배치, 관계, 전술이 개인들의 지치고 무기력한 신체를 유순한, 그러나 건강과 균형과 행복이 깃든 신체로 길들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힐링현상을 단순한 사회적 처방이나 문화적 유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통치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힐링이 실행하는 감정에 대한 작용과 효과를 설명하는 범위를 넓혀준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력한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위로와 안정으로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힐링담론의 일반적인 통치전략이라면 이것이 그간 한국의 통치성 연구들의 발판이 된 자기계발문화의 맥락에서 어떤 흐름 속에 놓여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류한소(2012)의 견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의 치유문화는 ‘치유’라는 언어를 빌린 자기계발문화의 새로운 변종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기계발문화는 정반대의 두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운을 북돋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에 지치거나 거기에서 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치유문화는 이 두 방향 중에서 특히 후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면서 그들에게 ‘정신건강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에게 더욱 더 힘을 내도록 ‘마음성형’을 독려한다. 이 ‘마음성형’이란 자신의 마음가짐을 신자유주의형 인간으로 새롭게 구조해내는 테크닉으로써 손쉬운 예로 ‘긍정성’과 같은 말을 들 수 있다. 이때 긍정성은 실제 상태나 기분이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류한소, 2012, 210쪽). 실제로 현재 힐링담론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가적 진단의 기준이자 동시에 결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대체로 그것은 진단에 있어서는 상처, 화, 우울과 같이 부정적인 것일지 몰라도 그 처방에 있어서는 웰빙, 예코,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언표들로 채워진다. 이러한 언표들은 사회의 전 영역에서 축진되다시피 하면서 개인의 삶을 조정하고 기획하여 이 시대의 주체들을 형성해 나간다. 일례로 ‘행복’이라는 긍정의 심리학을 통치성 이론을 적용해 분석한 벙클리(Binkley, 2011)는 외부의 통제와 종속으로부터의 자율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비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행복을 구성하는 내용들과 환유적으로 제휴되어 있으며 이것이 곧 오늘날 행복의 통치 작용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힐링’ 역시 넓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 긍정 이데올로기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힐링 현상은 좀 더 다른 해석이 덧붙여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복과 같은 심리적 장치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고 진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갖고 있는 반면, 힐링은 본질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태를 가정하고 그것을 위로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적극적이고 선택적으로 자기계발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주체성의 고양은 동시

에 정서적으로 병들고, 불안정하고, 상처받은 병인(病人)으로서의 주체성 고양과 함께 하고 있다'는 지적(김수미, 2014)은 한국의 힐링담론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치유의 전략은 개인을 병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위로이든, 방향제시든 심리적 훈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공통체나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자기치유에만 관심을 두도록 개인의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이런 전략은 결국 인간의 감정을 통치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감정 정치학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힐링'이 인간 정서의 구조를 파고드는 통치의 장치로서 엄밀한 작동의 구조와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비록 통치의 경험이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주체성의 확립 차원에서는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인이라는 집단적 주체성 고양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기실 인간의 감정을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통치함으로써 탈정치화된 주체들이 대거 양상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율이나 자립과 같은 언표들이 실상 각 사람들을 사회적 관계와 단절되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체제 하의 좋은 시민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온 것처럼(Rimke, 2000), 힐링 역시 개인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테크놀로지로서 개인을 파편화된 존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힐링의 대상은 병들고 고침을 받아야 할 주체이며 그 주체는 자신이 병든 상황을 인식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치유된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감정 정치학의 모순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은, 구조적 원인을 등한시한 채 단순히 대중요법처럼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값싼 힐링의 단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치하고 통치되는 관계에서 보다 새로운 의미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이 시대의 힐링담론이 실천해내는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자기통치의 구체적인 테크놀로지들이 인간을 어떠한 주체로 구현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힐링담론이 동인이 되어 또 다른 차원으로 재생산되는 이른바 포스트 힐링 시대 통치의 성찰적 미래를 가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의 힐링담론이 구현하는 자기통치의 전략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힐링담론이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맥락들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개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들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연구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대상

으로 한 담론분석을 실시한다. 더불어 담론의 하위 구조이자 보다 구체적인 범위로써 프레임 개념을 활용하며, 담론효과와 발현지점으로서 수용자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담론 분석은 담론 자체에 대한 인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담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다른 담론들과의 관계 확립 과정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특이성과 불연속성에 주목함으로써 수행된다. 담론 분석은 담론 내부가 아닌 외재적인 요소들, 또 그것들과 맺는 담론의 질서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Foucault, 1970/1998). 따라서 담론 분석은 담론의 내용, 발화자,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맺는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서 담론이 어떤 관계나 양상으로 형성되고 실천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담론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이자 담론의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단위로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되, 프레임(Frame)개념(Iyenger, 1991; Entman, 1993)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미디어 연구에서 프레임은 대개 뉴스 보도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분석틀로 기능해왔다(Tuchman, 1978/1995). 그러나 프레임을 보도 장르에만 한정지어 적용하는 것은 프레임의 개념이 가진 분석틀로서의 기능을 상당부분 축소하는 것이다. 물론 뉴스 보도의 속성상 다른 장르에 비해 두드러지고 구분된 프레임 유형들을 상대적으로 포착해 내기 쉽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템의 선정과 취재, 편집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제작자의 직간접적인 관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특정한 내용적 유형들로 나타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프레임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담론적 특성들을 정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틀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레임 개념의 유용성을 신뢰하고 이를 담론의 하위 요소로서 다룬다. 이를테면 힐링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 텍스트에서 텍스트 내부와 외부에서 나타나는 구분된 속성들이 존재할 때, 프레임 개념을 적용하여 그 특성과 차이점들을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통해 담론의 세부 전략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두 번째 방법론은 수용자 분석이다. 담론의 하위 영역으로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면서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동학인 수용자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힐링담론의 수용국면에서 나타나는 실천양상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힐링담론이 실제 개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생성해 내면서 삶의 양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용자들에게 해당 텍스트를 읽고 난 후 자기기술지 형식의 감상문을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여 다양한 실천들 속에서 주류적 부분과 특이성이라 할 만한 부분들을 구별해내어 각각의 양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4. 분석대상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넓은 범위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위임되어 개인으로 하여금 기업가적이며 자율적인 성향들을 스스로 계발하도록 유도된 과정을 수반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좁은 인식 수준에서의 경제적 실천들 훨씬 너머에 있는 개인의 행동, 인식, 그리고 일상의 양상을 폭넓고 다양하게 촉진하는 프로젝트이며(Binkley, 2009: Binkley, 2011 재인용) 자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제도, 실천양식, 담론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성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는 미디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힐링’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발현되는 현상의 하나로 보며, 힐링담론이 생산 및 재생산되고 유포되는 창구로 텔레비전에 주목하였다. 현재 ‘힐링’은 텔레비전, 서적, 공연, 여행, 음식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주목하는 이유는 TV가 텍스트를 둘러싼 다른 텍스트와의 의미조율 혹은 의미론적 호응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에 비해 상호작용성이 두드러지는 매체(전규찬·박근서, 2004)로 평가받는다라는 점, 따라서 텔레비전이 여타의 미디어들에 비해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많은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배적인 담론들을 다루는 데 익숙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텔레비전은 다른 매체와의 상호텍스트성이 가장 활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매체이다. 따라서 외부의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역시 필연적으로 얼마간의 성찰적 인식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하다면, 개인의 탓으로 치부되고 마는 힐링의 역학이 현실에서 보다 발전적인 담론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가치는 문화의 현상으로서 반영된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구성해 나가는 가장 대표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매체이기도 하다. 텔레비전은 평범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매체로서 통치성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정치학을 읽어내기에도 적합한 대상이 된다. TV를 통해 제시되는 힐링담론이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며 그 구체적인 양상들은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지 파악하게 된다면 통치의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의 삶과 조우하는 방식들을 나름대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텔레비전과 상호텍스트 관계에 놓이는 외부 미디어의 존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 백 만권의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서적으로 정하였다. 사실 서적은 힐링 트렌드의 덕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분야이면서 힐

링 열풍의 근원지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적 분야는 일부 스타 저자들을 중심으로 한 힐링 에세이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부상시킨 공이 적지 않다. 또한 수용자의 매체 이용에 대한 적극성 여부를 고려할 때 서적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서적은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통치 테크놀로지로서의 힐링담론이 작동하는 양상을 가장 적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TV와 서적이라는 서로 다른 미디어를 함께 분석하게 되면 담론의 내용, 형식, 전략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의 분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이점 또한 염두에 둘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국내 최대 서점으로 평가되는 교보문고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발표한 베스트셀러 순위 중 10위 안에 기록된 국내 힐링 에세이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간은 2011년과 2012년 총 2년 동안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가 힐링 열풍이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확산된 시점이기 때문이다.⁴⁾ 2011년과 2012년 연간 베스트셀러를 살펴본 결과⁵⁾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3권으로, 2011년 연간 베스트셀러 1위와 2012년 4위를 기록한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2012년 1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혜민), 그리고 2012년 6위를 기록한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김난도)이다. 이 3권의 책은 담론의 1차 생성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의 구성, 이야기 방식, 힐링의 논리와 구체적인 방법들 위주로 분석하였다.

베스트셀러 서적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서적은 3권에 불과하지만, 위 도서들은 저자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적극적인 상호텍스트성 관계에 놓여 있거나, 저자는 출연하지 않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텍스트 차용이 일어나는 경우 등 비교적 활발하게 텔레비전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순수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상호텍스트성) 해당 프로그램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저작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텔레비전이 책의 내용만 차용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결국 분석의 범위는 저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상호텍스트 관계를 이루는 프로그램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TV프로그램 분석대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지상파 3사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TV 프로그램의 분석 대상은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저자의 이름이나 책 제목을 입력하여 관련 프로그램

4) 실제로 2010년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상위 10위)에는 힐링과 관련된 서적이 등장하지 않는다.

5) <http://www.kyobobook.co.kr/bestseller/bestSeller.laf?mallGb=KOR&range=1&kind=0> 참조

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14건의 프로그램이 분석대상에 선정되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전제 하에 텍스트의 차용 양상과 차별화된 전략의 여부 및 그 유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힐링담론이 실제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의미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자기통치 전략으로서 어떤 실천적 효과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수용자 분석을 실시했다. 수용자 분석은 해당 서적을 읽은 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느낀 점들을 감상문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분석대상
서적 텍스트 총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지음)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지음)
TV 텍스트 총1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 강연100℃ - 2012년 6월 22일 '火화나는 마음과 친해져라' (혜민) • KBS1 아침마당 - 2012년 6월 14일 '힘들면 쉬어가세요' (혜민) • KBS1 아침마당 - 2013년 3월 13일 '흔들리는 어른들을 위한 자아 발견 프로젝트 - 엄마들이여, 더 당당하라!' (김난도) • KBS1 즐거운 책읽기 - 2012년 3월 20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 KBS1 즐거운 책읽기 - 2012년 9월 25일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 KBS1 책읽는 밤 - 2011년 3월 8일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 KBS2 낭독의 발견 - 2011년 4월 11일 '행진하라 청춘야' (김난도) • KBS2 두드림 - 2012년 4월 21일 (혜민) • KBS2 승승장구 - 2012년 12월 18일 (혜민) • MBC 기분좋은 날 - 2013년 1월 11일 '헤민스님! 힐링이 필요해요' (혜민) • SBS 지식나눔콘서트 아이러브인 - 2012년 1월 29일 '아직 꿈꾸는 그대, 청춘에게' (김난도) • SBS 지식나눔콘서트 아이러브인 - 2012년 9월 9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행복' (혜민) • SBS 지식나눔콘서트 아이러브인 - 2012년 12월 16일 '천 번의 흔들림, 그 후에 오는 행복' (김난도) • SBS 땡큐 - 2012년 12월 28일(혜민), 2013년 1월 1일 (혜민)
수용자 자기기술지 총 37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376명이 작성한 1,500자 내외의 자유감상문 (2013. 5 ~ 2013. 10)

5. 초기 힐링담론의 통치 전략

1) 힐링담론의 발화전략: 탈정치화한 개별적 주체들의 자기성찰 강조

초기 힐링담론의 통치전략을 메시지와 발화주체로 구분하면 먼저 메시지 즉 발화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힐링담론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전략은 개인의 존재가치를 강조하면서 주체의 개별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힐링담론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확인 작업을 거침으로써,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닌 온전히 자신에 대한 울골은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탈정치화된 개인의 존재 가치에 천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88만원세대로 표현되는 비정규직 양산문제, 청년실업문제로 인한 과도한 스펙쌓기, 치솟는 집값의 주택난, 정치적 양분화, 갈수록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 등 현실 세계의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정치역학들이 힐링담론에서 그다지 깊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역설적이다.

물론 구조적 요인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헤민은 그의 저서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매우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바쁜 건 지 내 마음이 바쁜 건지 잠시 멈추고 들여다보라고 말한다. 또한 김난도교수 역시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열풍에 대해 ‘기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짝한 마음이 든다... 요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사회가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따라서 사회가 얼마나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KBS1 책읽는 밤 2011년 3월 8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저서와 방송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언급되어지는 ‘개인’이라는 존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속에 놓여 있으나 자기 자신의 내면과 그 속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판단들을 통해 마음이 바뀌어야 할, 철저히 탈정치화된 개인일 뿐이다.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나의 문제이고, 사람들이 겪는 아픔도 사실 지극히 개별적인 것이며, 행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나로서 가치 있어야 하며 최선의 상태인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정치화된 개인의 프레임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근원은 내라는 인식이다. 여기서의 문제란 외부에서 발생한 상황적이거나 시대적인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를 뜻한다. 바깥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와 관계없이,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중요하므로 그 해결 역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된다. 헤민스님과 김난도교수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특히 내 잘못이 아닌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자기 운명을 살아갈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운명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 모든 것은 받아들이는 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난도, KBS1 아침마당, 2013년 1월 3일>

첫째,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 남들이 나에게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다른 이의 시선이나 생각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혜민, KBS2 이야기쇼두드림, 2012년 4월 21일>

자신에 대한 집중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혹은 그것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당사자가 학생이든, 전업주부든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유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이 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 내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내가 되는 것인데, 자꾸 남들이 옳다고 하는 답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신이 되라고. <김난도, SBS 지식나눔콘서트아이러브인, 2012년 1월 29일>

삶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그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혜민, KBS2 이야기쇼두드림, 2012년 4월 21일>

'오리지널이 되어라'는 주제로 강의한 TV프로그램(KBS2 이야기쇼두드림, 2012년 4월 21일)에서 혜민스님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스스로 오리지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 뜻대로 인생을 살고, 둘째,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셋째,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내가 잘 모

르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그건 미워하는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는 많은 일들도 알고 보면 본인을 위해 한다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 자신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 마음의 자세란 적극적 태도보다는 관조적인 양상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향한다.

이처럼 힐링담론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자신을 둘러싼 내적이고 외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방법이다. 이때 힐링이 필요한 탈정치화한 개인은 자존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치유의 결과로 환원된다.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프레임은 사회적 주체를 사적인 개인의 단위에서 다루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적인 언어를 사적인 언어들로 대체한다.

또한 힐링담론에서는 성찰과 성장이 매우 중시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보다 성찰적 주체가 되고 성장하는 대상이 되도록 가능하게 하는 시점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현재,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현재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먼저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동력은 다름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오늘날 개인에게 부여되는 시대적 임무들은 실상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개인의 마음, 생각, 판단이라는 것이다.⁶⁾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전략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인을 향한 통치술로서 얼마나 효과적이거나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개인은 구조적 변혁이나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통해 개선되는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치유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무언가 병들어 있는 대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써의 위로 내지는 치유의 손길이 된다. 동시에 개인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를 다독이고 발전시켜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들이다. ‘성찰’이라는 인표가 힐링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양식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책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두에서 ‘성찰’(혹은 ‘성장’)은 힘들고 지쳐서 아파하는 개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처방전처럼 매우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6) 개인의 마음에서 해결점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힐링담론의 특성은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제목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청춘(물론 나이가 청춘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은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가득 차 있다가보다 원래 불안하고 흔들리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 제목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정작 중요한 일에는 굉장히 게을러요. 나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성찰하고, 내 방법론에 대해 성찰하고, 이 사회에 대해 성찰하고, 내 고객에 대해 성찰하는 성찰의 시대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는 너무 너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김난도, SBS 지식나눔콘서트아이러브인, 2012년 1월 29일>

신해철: 분노를 넘어서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혜민: 분노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걸 대분심이라고 해서, 내가 왜 스스로 못 깨달았는가고 하는 거 ... 성찰의 힘으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요함에서 바로바로 아는 지혜의 힘이 더 세요. <혜민, KBS2 이야기쇼두드림, 2012년 4월 21일>

성찰은 분노와 화를 넘어서는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자기스스로의 이름을 찾아가게 만드는 경로이기도 하다. 일례로 김난도교수는 한 TV프로그램에서 주부의 가장 힘든 상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상태인 것 같으며,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더 담대한 꿈을 꾸라고 독려한다. 혜민스님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프로그램에서 남편과 자녀에게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밖으로 나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발전시키라고 말한다. 그는 살다보면 누구나 결핍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것을 남이 아닌 스스로 노력해서 채우게 될 때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성찰과 성장은 현재의 내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장차 올 행복과 성공을 준비해야 한다. 행복을 조건부로 설정하게 되면 현재가 항상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알게 되면 미래로 향해 있는 우리의 관심을 현재의 상태에 온전히 머무르게 할 수 있다(혜민, KBS2 승승장구, 2012년 12월 18일). 현재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김난도교수의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나이를 시간에 빚댄 '인생시계' 개념이나, 꽃마다 피어나는 자기 계절이 있다는 비유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가을에 피는 국화가 봄에 피는 매화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위해 조금씩 자신을 성장시키고 연습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청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실패조차 하지 않은 비겁함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실패 뒤에는 오히려 더 큰 성

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일관되게 제시했던 이러한 내용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매우 강하게 말한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춘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이른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천천히 힘주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김난도, SBS 지식나눔콘서트아이러브인, 2012년 1월 29일).

힐링담론이 규정하는 주체, 즉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성찰과 성장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적인 면에서 무언가 맞지 않아 보인다.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위로와 휴식이 더욱 필요한 건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성찰의 대상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힐링담론 속에서 작동하는 정교한 통치의 수준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반복해 제시한대로, 성찰의 대상은 바로 개인 즉 자기 자신이다. 시대에 대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힐링담론은 개인을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시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구조는 사라지고 개인만 남는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위로이고 멘토링인 것 같지만 실상 이 시대에 환영받는 인적자본의 기준을 알려줌과 동시에, 개인을 사회적 관계들 속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정체성’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개별적 가치에 천착한 순응적인 주체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 힐링담론의 발화주체 전략: 엘리트의 눈높이 소통, 멘토와 스타 그 사이

오늘날의 통치성은 지적 테크놀로지나 각종 실천적 활동들,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 권위들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심리학적 지식을 앞세운 전문적 지식이나 전문가의 명령 내지는 지침들은 자기통치와 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병합하게 되면서 정치적 주체와 전문화된 지식 사이의 특정한 관계들이 종속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Rose, 2008; Miller & Rose, 2008).⁷⁾ 힐링담론의 주도적 발화주체였던 헤민스님과 김난도교수 역시 지적 테크놀로지는 물론 실천적 활동과 사회적 권위를 갖춘 전문성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 힐링담론에서 활용한 것은 고도화된 전문적 상담과 처방이 아닌, 공감과 위로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중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의 자기통치 멘토로서 열광적으로 수용되었다.

7) 최근 한국사회의 힐링문화가 정치 영역과 접합되는 양상을 안철수 현상을 통해 바라본 이영주(2014)의 연구에서는, 안철수 현상이 이른바 힐링화된 정치현상으로써 정치에 대한 보수적인 사고의 틀을 재생산하고 개혁과 진보정치의 전개를 오히려 억압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통치성을 직접적 기반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힐링을 앞세운 오늘날의 문화 정치의 경향들을 정치적인 퇴행의 선상에서 읽어냄으로써 로즈나 밀러가 제시했던 주체의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실제적 수준에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헤민스님은 UC버클리대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석사 과정을 하던 중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승려가 된 후 프린스턴대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2007년부터 미국 햄프셔대에서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난도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거쳐 현재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러한 화려한 스펙의 엘리트들은 SNS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대중과 매우 활발하게 소통해 왔고, 그 소통의 결과로 해당 서적들이 출판되었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었다.⁸⁾

이러한 힐링멘토들의 스타성을 가장 활발하게 생성해 낸 것은 바로 TV다. TV의 성찰적 매개 기능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TV를 통해 이들의 최고급 스펙과 외모는 적극적으로 칭송되고 강조되었다. 힐링멘토는 TV를 통해서 대중적 스타로 변모하면서 상품가치가 높은 소비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졌다. 이들의 서적들이 메시지 내용만으로 대중들에게 파고들었다면, 텔레비전이라는 영상매체는 저자들의 표정, 몸짓, 어휘, 목소리의 톤 등 시청각적인 효과를 함께 동반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다. 최고의 지성으로서 화려한 스펙을 소유한 엘리트들이 TV에 나와 겸손하면서도 철저히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전략을 구사한 것은 힐링담론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들의 소통 방식은 겸손함과 겸허함이라는 특성으로 압축된다. 이들을 소개하는 타이틀 자막은 헤민스님의 경우 ‘한국 승려 최초 미국 대학교수’, ‘햄프셔대학 교수’가 빠짐없이 붙고 있으며, 김난도교수도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이 반드시 함께 제시된다. 즉 이들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신분으로 먼저 소개된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인간적 속성은 위와 같은 사회적 조건과는 사뭇 다르다. 일례로 헤민스님은 팔로워가 85만 가까이 되는 파워 트위터러안으로 꼽히면서도 “2만 명까지는 일일이 답장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라든지 자신의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것 때문이지,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KBS2 승승장구, 2012년 12월 18일)라는 말로 자신을 낮춘다. 김난도교수 역시 방송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실감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바뀌지 않는 것인데요. 나를 굉장히 노력합니다. 안 바뀌는 선생님이 되려고”(SBS 지식나눔콘서트아이러브인, 2012년 1월 29일)라

8) 김난도교수의 두 저서가 독자모니터단을 5백 명, 1천 명씩 운영한 결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대중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며 겸손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인정받는 이들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겸손의 미덕까지 갖췄다는 점은, 당시 대중에게는 이들을 단시간에 자신들의 멘토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격이었다. 힐링담론이 열풍처럼 번졌던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만큼 정치적 긴장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두 선거 모두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구도 속에 진행되면서 정치적 피로감이 높아지던 시기에 겸손과 소통의 미덕을 두루 갖춘, 그런데다 힐링을 선두에 내세우고 등장한 이 두 명의 엘리트는 단순한 베스트셀러 작가 그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서 국민 멘토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자신에게 하버드대학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거’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는 겸손하고 맑은 영혼의 멘토에게,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다른 분들보다는 서울대교수라는 좋은 직업을 갖게 돼서 다행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청춘의 멘토에게, 누가 쉽게 안티가 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또한 눈높이 소통에 매우 능한데, TV프로그램들에서 이런 점은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헤민스님은 여러 방송에서, 자신이 미국의 우수 대학에 유학한 걸모습과 달리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한 전화도 없는 집에 살았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와 라볶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라볶이 안에 어묵이 들어있을 때 그것을 승려로써 먹을까 말까하는 고민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거쳐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는 ‘도시를 좋아하는 동네스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김난도교수 역시 스물다섯 살에 아버지를 포함한 집안의 세 어른들의 장례를 차례로 지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젊은 시절 젊어야만 했던 삶의 무게에 대해 대중과 공감을 나눈다. 그는 콧비 재킷에 편안한 캐주얼화를 신은 모습으로 수많은 방청객들 앞에서 “똥미?”, “레알”과 같은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젊은 관객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낸다.

수려한 외모와 부드러운 톤의 목소리와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들이 텔레비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헤민스님은 방송진행자들에 의해 “스님치고 파격적인 분”, “교회오빠 대신 절오빠 스타일”(KBS 승승장구, 2012년 12월 18일), “너무 잘 생겨서 슬픔이 느껴지기까지 한 얼굴”, “훈남스님”(KBS2 두드림, 2012년 4월 21일), “정말 잘 생긴 스님”(KBS1 강연100도씨, 2012년 6월 22일)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잘 생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내내 부드러운 톤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헤민스님은, 그래서 책이나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에 더욱 잘 맞는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값싼 위로’일뿐이라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SBS 땡

큐, 2012년 12월 28일)은 승려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보여주면서 그의 진정성을 더욱 강화해 준다. 김난도교수 역시 빠르지 않은 속도의 부드러운 하이톤의 목소리를 갖고 있으며 청중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익숙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교수’보다는 ‘선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선호하는데, 실제 그의 메시지는 ‘선생’을 넘어 ‘선배’로서의 조언에 더욱 가깝다.

화려한 이력의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인간 됬됨이를 갖추었으며, 대중과 눈높이 소통에 거리낌이 없고, 수려한 외모를 가진데다 부드러운 톤의 목소리로 ‘지금의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멘토들.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개인적 매력 요소들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원하는 대중성과 스타성으로 정확하게 접목되면서 초기 힐링담론이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기본 요인이 되었고 이 시대 많은 이들의 자기통치전략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6. 힐링담론의 수용 양상

1) 자기반성으로 회귀하는 위로의 메시지

수용자들의 감상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지배적인 수용 양상은 힐링담론을 치유나 위로의 기능보다 자기반성의 기제로 활발히 사용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일종의 마음의 성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점은 대다수의 수용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 힐링텍스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부끄럽게 반성한 후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약속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다. 즉 힐링메시지는 위로의 목적보다 오히려 전형적인 자기계발의 수준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젊은 수용자들은 ‘나태한 자신이 싫다고 말하면서도 게으른 일상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83쪽)는 멘토의 지적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이제부터 달라져야한다.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나만의 도끼를 갈아 장애물을 베고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채○○, 21세, 남)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 또한 그동안 나름대로 기울여왔던 자신의 방식을 잘못된 것이었다고 여기기도 하며, 언뜻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는 슬럼프를 자신의 생각 없음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나는 여태껏 한 가지에 얽매이면서 몰두하는 게 노력하는 건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었다고 느꼈다. 바닥까지 떨어진 뒤 좀 더 뒤를 돌아보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이제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얽매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것을. <박○○, 남, 20세>

평소에 게으름이 많은 내가 부끄러워진다. 슬럼프라고도 느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거대한 목표만 세워놓고 계획도 실천도 없으면서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대학만 다니면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갈 줄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거기다가 일찍 성공할거라는 자신감까지 갖고 있었으니 미래의 내 자신이 현재 나를 본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김○○, 여, 20세>

자기반성을 동반하는 메시지 수용은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주체를 고양하는 데로 나아간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런 과정은 먼저 지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문제투성이인 자신을 반성하기, 그런 다음 멘토들이 제시하는 방법에 맞춰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순으로 이어진다.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한 ‘마음’은 반성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당히 강화된 상태가 되어 주체성을 고양하는 데 힘을 보탠다.

과거에 집착해 현재 내 모습을 미워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제부터는) ‘과거엔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나를 발전시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라는 말을 자주하고 글로도 표현할 것이다. <김○○, 여, 25세>

지금보다 조금 더 나를 사랑하고 싶다 ... 부족하기에, 모자라기에, 그래서 채워나가야 할 것이 더 많기에 좀 더 겸손하며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겠다. 아모르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처럼. <유○○, 여, 32세>

자기반성을 통해 고양된 주체가 향하는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내면이다. 수용자들은 바깥의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선택하는 대신 마음의 성형을 통해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조정하여 맞추는 쪽을 선택한다. 결국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신자유주의 자기계발담론의 전형은 힐링담론에서도 여지 없이 드러난다. 일부 수용자들은 책의 구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까지 자신의 내면적 변화를 다짐하며 더욱더 자기에게 집중하려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그대를 향한 모든 문제의 정답은 그대의 눈동자 속에 있다’이다. 이 말을 통해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으로 앞으로 겪는 일에 대비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생각하며 이런 말을 기억한다. ‘지금 그대 자신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당당할 수 있겠나?’ 나는 실패해도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다. 내 자신에 대해 당당하기 위해서 말이다. <김○○, 남, 21세>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집중해서 보다보면 전화번호부책도 재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재미없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에 집중하지 않아서 입니다’라는 부분인데, 이 대목을 읽고서 나는 ...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맞춰가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을 되돌아보며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다. <김○○, 여, 20세>

성찰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을 권능화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기계발의 사명에 매우 충실한 결과이므로 적극적으로 장려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통치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자기반성과 자기위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대의 윤리에 스스로를 부합시킨 유순한 주체임을 명백히 한다.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김난도교수는 오늘날 젊은이들을 향해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에 모든 것을 뒤로 미뤄버렸다’(KBS1 즐거운책읽기, 2012년 9월 25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 아픈 청년들 아니, 아프다고 규정된 청년들에게 있어 그들의 존재가치는 사회와 구조에 대한 겁 없는 비판과 혈기 넘치는 실천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내면으로 천착함으로써 자신들을 문제시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존재가치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곧 생존의 윤리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힐링 멘토들의 메시지를 통해 더욱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 힐링담론을 신자유주의의 연성화된 자기계발의 전형으로 읽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수용담론의 균열 지점들

총 376건의 수용자 감상문은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공히 힐링 텍스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담론의 특이성과 불연속성 같은 요소들에 주목하는 것이 담론 분석의 실천적 의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의 비판적 수용에 별도로 주목하게 되었다. 개인별로 작성한 약 1,500자 내외의 자유감상문 안에

비판적 견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들(41 건)을 별도로 취합하여 수용담론 내부에서 나타나는 균열 지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교수님이 제 고통을 아시나요?

‘당신은 내 고통을 모른다’. 수용담론의 균열이 나타나는 첫 번째 지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수용자들은 텍스트에 대해 분명 좋은 글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실상 기대했던 위로는 받지 못했음을 알리고 있다. 개인들의 내면을 낱낱이 알 수는 없었지만, 대개 개별적으로 좌절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버지의 실직, 어머니의 건강 악화. 때로 가압류 경고와 빗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올 때 마다 어머니는 나에게 너는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잡고,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류의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는 바쁜 하루, 쫓기는 하루가 잘못되었다고 했지만,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욱 더 카르페디엠의 참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치 지금의 내가 미소를 지으며 카르페디엠을 속으로 읊조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김○○, 여, 22세>

창의적이고 발전 가능한 인재를 뽑는다고 하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성적이 좋지 못하면 내적인 면을 보여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필기준비를 하면서 스펙은 한 장 차이가 아니라 넘어야 할 벽이라는 것을 느꼈다... 김난도교수님은 스펙은 한 장 차이라고 말한다. 그는 법대에 갔고 유학을 갔을 만큼 좋은 집안이었고, 중간에 전공을 바꿀 만큼 좋은 성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 좋은 스펙을 가졌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여, 23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취업난, 개인의 아픈 과거 등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내지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같은 말로는 위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겪는 고통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만큼은 저자들보다 한 수 위로 보인다. 저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고통과 아픔이 과거의 것이라면, 이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한 응답자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자신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헤민스님은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일을 해보았을까?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해

많은 고객을 상대해 보았을까?’라고.

힐링담론이 자신들에게는 기대만큼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들은, 저자들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 우리들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자기합리화를 유도하는 것 같다는 불편한 시선을 동반하고 있다.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어른이 된다는 말은 너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만 바꾼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아픈 상처는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니 떼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말은 과거의 아픈 상처가 여전히 그대로 느껴지는 자신에게 만큼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스물넷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안정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빗대어 보며, 첫 마음을 되새겨 보았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아니면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라는 말을 단어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히 좋은 책이고, 마음의 위안을 삼을만한 책이지만, 저자는 인내와 기다림조차 사치인 그런 청춘들의 아픔까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서○○, 여, 25세>

힐링텍스트가 실질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한 수용자는 ‘나의 흔들림을 알아주고 위로해 벗어나지 않도록 타일러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는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아픈 청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녕 그 아픔에 대한 해결방법은 주지 않은 채, 우리는 아파야하고 그 아픔은 우리가 다 감수해야 한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며 김난도교수가 자신에게 우리를 일반화하여 맞추려고만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학점, 스펙, 취업 등 당장 현실의 산적한 문제들을 아프게 목도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그 아픔을 감수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가.

힐링텍스트와 그 저자들에 대해 실질적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메시지를 권위적으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비판적 수용자들은 텍스트의 내용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것이 왜 자기에게 공감이 되지 않았는지, 왜 그것을 거부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른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미래의 큰 목표를 가지라는 말을 하는데, 신인상을 받으므로 꼭 나태해지거나 거만해지는 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신인상은 이른 성공을 떠나서 받는 이에 더 잘하라는 채찍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받는 이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공의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그 누가 감히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 남 26세>

수용자들은 저자의 메시지가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여겨질 때 저자의 메시지에 순응하기보다는 독자로서 자신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고 표현한다. 한 22세 남성 수용자는 ‘못 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헤민스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잘생긴 나무는 잘났기 때문에 목수가 미리 알아보고 베어갔을 것’이라며 산을 지키는 나무와 베어져 다른 용도로 쓰이는 나무는 우위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용도가 있을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22세 여성 수용자는 ‘아파본 적이 없다고 느낀 나 역시 책을 읽을 때만큼은 위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자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우리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들은 저자들이 청춘인 우리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자기합리화나 일반화된 메시지를 전파할 뿐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저자와 자신들의 관계는 더 이상 멘토와 멘티 관계로 인식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저자와 독자라는 수평적 개체로서 서로의 관계를 평등하게 읽어내면서 ‘내 판단은 내가 한다’는 식의 선택적 수용을 하고 있다.

(2) 당신은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난 아니에요

젊은 수용자들에게 두 저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 저자들이 가진 화려한 과거와 현재, 즉 저자들의 스펙은 젊고 평범한 수용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와 같다. 엘리트 저자들의 화려한 스펙은 독자들의 메시지 수용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진 저자는 지금의 우리와는 분명 다른 청춘을 보냈을 터인데, 그런 그가 우리들의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겠냐는 것이다.

책 밖에서의 그는 멀게만 느껴졌다. 소위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대도 ‘시대를 잘 만나’ 석사장교로 마무리했다. 유학도 갔으며 결국 모교의 교수로 돌아왔다. 그런 그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의 세대가 만들었지만, 책임은 우리가 지는 이 모순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라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채○○, 여, 22세>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김난도교수는 조부모와 부친의 연이은 죽음을 통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청춘 시절의 아픔을 대변한다. 그런데 수용자들은 그런 저자의 경험을 젊은 시절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받아들이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잘 나가는 삶이었다고 인식하면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저자가 ‘고시’라는 줄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도 서울대라는 학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텐데, 본인이

고시를 포기했더니 다른 일들이 술술 풀렸다면 일이 안 될 때는 그 줄을 놓으라는 건 남아 있는 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 22세 여성 수용자는 김난도교수가 하고 싶었던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삼십대 중반까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불안정한 소득의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고려하게 되고, 꿈만 좇기엔 세상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원한다 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자신들의 상황은 분명 다르다고 말한다. 또한 23세 여성 수용자의 경우도 '이상을 좇고 꿈을 좇기 위해서는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조건들을 충족할만한 능력이나 재능, 학벌이나 재력, 운, 심지어 외모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조건과 부담들이 따른다. 그런데 단지 청춘이라는 이유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김난도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할 수 있을 정도로 굴곡지고 다양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작가는 35세까지 공부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가정환경이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한 게 다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사실에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었다... 작가께서는 돈에 대한 걱정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작가는 책의 제목인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아팠는지 의문이 든다.
(김○○, 여, 24세)

위 여성 수용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으면서 무척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저자의 배경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저자의 배경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고 나니 자신이 얻은 감동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돈 걱정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자신에게, 최고의 스펙을 갖춘 부르주아의 위로는 결국 더욱 작아진 자신을 확인하게 할 뿐이다.

화려한 배경으로 무장한 엘리트 저자들에 대한 인식은 청춘 세대들에게는 믿었던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용자들은 '세상은 그들 세대가 만들어 놓고 책임은 우리가 지는 모순', '배부른 소리로 가득한 책과 같은 표현으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다. 저자들이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청춘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은 알겠지, 그렇다고 자신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만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세대가 아닌지 반문한다. 책임을 져야 할

세대가 왜 아파도 참는 것이 청춘이라며 어울리지 않는 위로를 하는 것인지, 삶의 무게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힐링도 위로도 아닌 그저 배부른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학력과 계급에 대한 반감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비판들은 힐링을 둘러싼 세대갈등담론으로 이어진다.

(3) 신자유주의 세대의 항변, 우리 탓이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 기성세대 저자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춘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수용자들은 위로도 필요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생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작가는 일찍 성공하는 것을 불행이라 보고, 오만해지기 쉽다고 했다. 그러나 일찍 출세한다고 불행해지라는 법은 없다 ... 그러므로 '소년등과일불행'이라는 옛말은 집어치우고, 인생에서의 꽃을 일찍 피워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다. <배○○, 여, 22세>

공부하는 법만 배워오고 경쟁하는 법만 배워온 우리에게 '쉽'을 하라니. 낮설고 의미를 되새겨도 진정한 '쉽'을 알지 못한다. '쉽'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도 이제껏 쉬라는 말을 해준 적도 없기 때문에 ... '쉽'이라는 것. '포기'인지 '정지'인지 '마음비우기'인지 한참을 고민해도 모르겠다. 방법이 없으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사회의 모순 속에서 이 책은 그저 '쉽을 행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고만 말하고 있다. <현○○, 여, 22세>

이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매우 신자유주의적이다. 이들은 성숙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능력이 있다면 일찍 자신의 뜻을 피우는 쪽을 선택한다. '쉽'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배워본 적도 없고 쉬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할 만큼 경쟁 자체가 자연스러운 배경 속에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여유를 갖고 바라보는 방법보다, 현재 처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절실하다. 이들에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는 바람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손에 잡을 수 있는 실체적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다.

수용자들은 나아가 현재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를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저자들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펙과 돈에 관한 것이다.

김난도교수는 과학계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테크를 하지 말고, 연봉이 낮은 곳을 직업으로 택하고, 스펙을 쌓기보단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라합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20대인 저에게는 교수님의 그런 말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스펙을 안 쌓으면 어떻게 취업을 하나요? 돈이 있어야 하고픈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 여, 22세>

힐링메시지는 경우에 따라 과학계 낭만적인 이야기, 즉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저 '막연하게 좋은 말들'로만 읽히기도 한다.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고 새롭게 깨달은 내용도 있지만, 현실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의 메시지 속에는 부모의 카드 빛과 학자금 대출까지 없어진 청년들의 허덕이는 현실이 생략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스펙을 강요하며 학교에서도 스펙 만들어 주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들에게 자기성찰을 하고 장점을 파악해서 나만의 스토리로 승부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리 잡은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너무 힘든 이야기다. 청년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현재도 그것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스펙'이라는 대상은 '청춘'의 이름으로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별 것 아닌 상대가 아니다. 이들에게 '스펙'은 하나씩 만들어 놓아야 할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시대의 경제적 주체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무게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대가 힐링담론을 비판하는 또 다른 주요 양상은 현재의 상황이 '우리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청년들에게 사회에 끌려 다니지 말고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볼 때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나 생각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여성 수용자는 '저자의 말대로 우리가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에 뜨거운 청년들이 다 일어나 행복한 세상을 벌써 만들었을 것'이라며 '마음 같아선 나도 저자가 말한 대로 따라가며 살고 싶지만, 저자는 자신이 청년이었을 때 그렇게 살아갔었을까 의문이 든다'며 자신들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우리나라의 청년은 청년이 되기 전부터 사회에서 주는 구조들로 충분히 아팠고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자는 '청춘은 아파야만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 책을 읽으면서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현재 우리는 사회 속의 잘못된 구조나 이전의 기성세대가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안전망 때문에 충분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오○○, 여, 22세>

아쉬운 점은 이 책에 내 진로에 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헤 민스님의 답변은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잠시 멈추어보라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었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역량문제도 있으나 최근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영향도 크기 때문 에 이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 여, 22세>

이들은 분명 지치고 힘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청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렇다 해서 현실을 무책임하게 회피하려들거나 생각 없이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매우 분명한 수준으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성세대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왜 그 아픔을 우리에게 전가하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식으로 그것 을 당연시하는가를 비판하면서 무책임한 대상은 기성세대라는 점을 확실히 짚는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을 문제화하는 방식으로 지배적 수용담론에 균열을 가하는 양상 도 확인할 수 있다. 힐링메시지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의 운 명을 더 버겁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고백이 그것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더욱 아프게 인식하는 양상은 ‘그래서 내가 문제란 말인가’라는 식의 부정적 해독으로 나타난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고 싶은 운명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진다. 이 책을 읽고 물 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힘을 내야지 생각이 들었지만, 가슴 한 부분은 자꾸만 멍 멍하고 한숨만 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 남, 25세>

방황하는 청춘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책이지만, 자신의 삶과 청춘을 돌아보며 자책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변화할 의지마저 꺾이는 듯싶었다. 이 책을 읽고 좋은 내용도 있었지 만 절망적인 글 또한 많았다. 내가 현재 잘못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것 같다. <유○○, 여, 22세>

자기기술지를 통해 본 수용자들의 힐링담론에 대한 인식은 대다수 수용자들의 경우 위로의 메시지를 자기 성찰의 기제로 삼고 권능화된 미래를 가정하고 있지만, 일부 수용자 들에게서는 ‘나는 아파야 한다’, ‘나는 잘못 살고 있다’는 식의 전제들과 맞서는 상반된 모습 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수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책들이 모두 좋은 책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청춘의 초입에 놓여있는 자신들을 문제적 대상으로 규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는다. 한 20세 남성 수용자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 본 사람들에게는 상처의 경험들이 공감되어 ‘청춘은 이래야 한다’가 상당히 와 닿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막 '청춘'을 경험하려는 이들에게 청춘은 이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공감보다는 거부감부터 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며 이런 전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힐링이라는 독특한 담론이 만들어낸 세대갈등담론의 변형을 보여준다.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기성세대의 질서를 비판하는 구조는 지배담론으로써의 힐링을 거부하는 구조로도 드러나는 것이다. 힐링담론은 주체를 이미 위로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한 후 세부 전략들을 실천한다. 따라서 자신을 문제적으로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양상은 곧 힐링담론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용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힐링담론의 기본적 질서 내부로 편입되기를 거부하면서 힐링이라는 지배적 담론에 균열을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을 유순한 주체에 대한 거부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수용자들은 힐링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그것이 힐링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주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은 매우 신자유주의적 사고로 힐링메시지를 기대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바라는 세부적 혹은 실질적 방향제시를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취업난, 스펙경쟁, 경제불황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시기를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들이 신자유주의 삶의 윤리가 이미 체화된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청춘이라는 시기적 혼란과 시대적 혼란은 구별되어야 하며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자로써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본인들의 탓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뿐이다.

7. 요약 및 결론

초기 힐링담론은 치유가 필요하다는 이름으로 이 시대의 개인을 유순한 주체로 미리 규정한 채 그 속에서 일련의 담론적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작동방식을 보여준다. 힐링담론은 개인의 존재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대적인 문제와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비판이 배제되면서 결과적으로 탈정치화된 개인의 존재 가치에 천착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힐링담론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탈정치화된 개인의 프레임으로 국한시키는데, 이러한 개인은 자존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이 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치유의 결과다. 더불어 힐링담론은 현재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성찰적이며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성찰과 성장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의 자리를 대체

하고 있으며 치유가 필요한 개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가치를 성찰을 통해 높이라는 요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이 인적자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멘토링 이상의 시대적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힐링담론은 ‘권위를 버린 엘리트의 눈높이 소통’ 전략을 통해 대중적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 화려한 이력의 엘리트지만 겸손하며, 대중과 눈높이 소통에 익숙하고, 잘 생겼으며, 온화한 톤의 목소리를 가진 멘토들의 장점은 대중성과 스타성이라는 요소로 접목되면서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얻으며 힐링담론이 자기통치전략으로 널리 확산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힐링담론은 수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기반성과 성찰을 활용하는 자기통치로 이어진다. 힐링메시지들은 위로와 치유라는 본질적 기능보다 자기반성이라는 자기계발담론의 실천적 전형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 삶의 주인으로 자신을 권능화하려 한다. 지배적 담론실천 양상 외에, 특이성에 주목하게 만드는 담론실천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일부 수용자들의 경우 힐링텍스트를 받아들이면서도 비판적이고 불편한 시선들을 표출하면서 지배담론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힐링텍스트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위로나 실천적 방법들을 담고 있지 못했다면서 저자들이 본인 경험에만 의존해 수용자들을 일반화하고 자기합리화를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들은 저자와 자신들의 관계를 멘토와 멘티가 아닌 저자와 독자라는 관계로 평등하게 읽어내면서 선택적 수용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화려한 스펙의 엘리트 저자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로, 이런 상황을 겪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할 세대로 인식하면서 그들의 공허한 노파심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청년 세대들은 힐링이 필요한 자금의 상황은 자신들의 탓이 아니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며 생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힐링담론이 자신들을 문제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거부하면서 힐링이라는 지배적 담론에 지속적 균열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담론 내부의 이러한 균열 내지 지배담론과의 충돌 지점들은 힐링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자기계발 주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비판적 수용을 보이는 담론 주체들은 신자유주의 삶의 윤리가 이미 체화된 세대로서 오히려 매우 경제적인 사고방식으로 힐링메시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 불황과 정치적 양극화의 역학 속에서 갈수록 공고해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들, 그리고 최근 세월호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맨얼굴을 보며 다시금 ‘힐링’을 생각한다. 그간 우리에게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그리고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힐링담론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자기주문을 걸어오면서 탈정치화한 개인, 순응의 질서에 부합한 개별적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구조적 결합으로 인한 상처와 한계를 탈정치화한 개인으로 회귀함으로써 치유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스스로 가만히 있던 채로 주변화되어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관조적 자세로 자신을 타자화하여 개인의 존재가치만을 높이는데 모든 정력을 쏟아 붓는 것이 미래의 나를 행복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

더불어 힐링담론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돌아켜본다. 출판사는 대박이 났고 그들이 기획해 시장에 내놓은 멘토들은 텔레비전에 의해 완벽한 대중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을 추앙하며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리는 지금 어디인가? 힐링은 다양한 소비대상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면서 충성스러운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소비된 것은 오히려 우리인지 모른다. 우리는 힐링을 주체적으로 소비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비롯해 사회의 본질이나 레짐에 대한 명철한 비판의 기회를 힐링에게 이미 내 준 이후다. 결국 우리는 소비되는 소비자였을 뿐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힐링담론은 치유와 위로가 절실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강력한 대안처럼 등장했지만 그 자신을 추동시킨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지배적 담론실천 내부에는 담론의 균열과 특이성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힐링이라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적 거부이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질서에 대한 근본적 저항은 아니다. 따라서 그간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많은 이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위로해주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힐링담론은 사회의 결을 따라 풍요롭게 넘쳐흐르는 구조적 모순과 상징폭력들 속에서, 비판과 실천에 비해 자기반성이 훨씬 능한 순응적 주체들에게 윤리적 삶이 아닌, 신자유주의 삶의 윤리를 더욱 강화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혹자는 ‘힐링’이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미 정점을 지난 지 오래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물론 트렌드로서의 ‘힐링’은 더 이상 중심적 키워드의 역할을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권력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작동되며 재생산되고 자가 증식한다는 점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힐링담론을 통해 구현된 통치전략의 위와 같은 세부적 기술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강하고 유효한 측면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제2, 제3의 포스트힐링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가 필요한 주체들 속으로 깊게 침윤한 힐링의 권력—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새롭고 그럴듯한 현상들에 도취되어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잇는다.

참고 문헌

- 김수미 (2014). 한국 치유 문화 작동의 정치학: 신자유주의 통치 시기 주체 구성에 대한 일고찰. <언론과 사회>, 22권 1호, 114-161.
- 김찬호 (2014).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 류한소 (2012). 신자유주의적 위로, 치유문화. <문화과학>, 69권, 206-213.
- 송현·안관수 (2013). 자기계발서 전성시대와 힐링 인문학. <디지털 정책연구>, 11권 11호, 783-793.
- 심보선 (2013). 힐링이라는 이름의 권력. <문학과 사회>, 26권 2호, 249-261.
- 이영주 (2014). 힐링화된 진보정치에 대한 비판적 소고. <문화와 정치>, 1권 1호, 105-127.
- 이은아 (2014). <한국사회의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청년세대' 담론과 '멘토열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민우 (2013). <한국사회 '힐링(Healing)' 담론에 관한 연구: 자기계발 담론의 양가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규찬·박근서 (2004). 자기성찰적 텔레비전의 문화정치적 가능성. <방송통신연구>, 2004년 여름호, 239-263, 한국방송학회.
- 한병철 (2015).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 경향신문 (2012. 7. 5). 힐링 열풍: '현대인의 마음병 치유' 상담 카페 서적 등 열풍.
- 시사저널 (2012. 11. 21). '힐링' 해준다며 '멘붕' 부르는 상술.
- Binkley, S. (2011).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and the program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Subjectivity*, Vol. 4, pp. 371-394.
- Ehrenreich, B. (2009). *Bright-Sided*. 전미영 (역) (2011). <긍정의 배신>. 부키.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3, No.4, pp. 51-58 .
- Foucault, M. (1970). *The order of discourse*. 이정우 (역) (1998). <담론의 질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 Foucault, M. (1991). Governmentality. In Burchell, G., Gordon, C., & Miller, P.(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87-104. Harvester Wheatsheaf.
- Foucault, M. (2001). *L'HERMÉNEUTIQUE DU SUJET: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1-1982*. Gallimard/Seuil. 심세광 (역) (2007).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 Foucault, M. (2004).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Gallimard/Seuil. 오트르망 (역) (2011). <안전, 영토, 인구>. 난장.
-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TRA (2012). <불황을 뚫은 세계시장 대박상품>. KOTRA 선진시장팀.
- Lemke, T.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 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Vol. 30, No. 2, pp. 190-207.

- Miller, P., & Rose, N. (2008). *Governing the present: A Administering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Life*. Polity press.
- Rimke, H. M. (2000). Governing Citizens Through Self-help Literature. *Cultural Studies*, Vol. 14, No.1, pp. 61-78.
- Rose, N. (1989).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Free association books.
- Rose, N. (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anor, P. (2005). Neoliberalism: origins, theory, definition. Retrieved from <http://web.inter.nl.net/users/Paul.Treanor/neoliberalism.html>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나남.
- 酒井隆史 (2001). 自由論-現在性の系譜学. 오하나 역 (2011). <통치성과 자유: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그린비.

투고일자: 2015. 07. 28 게재확정일자: 2015. 11. 20 최종수정일자: 2015. 11. 22

Self-government Frame and Discourse Effect of 'Healing' Phenomenon in Korea*

Eunjune Kim

Assistant Professor,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Based on the Foucault's governmentality, this study has described the self-government strategy that healing discourse is implemented during 2011-2013. Healing discourse's priority is the existence value of individual and full concentration about self is needed more than anything. In this process, people who need to heal and comfort are limit to de-politicized individuals. Healing discourse emphasizes that the current enhancement in order to become reflection and growth of self. Demands of reflection and growth is substitute the critics of the era and society, but also act as a specific code of conduct to individuals. While emphasizes the reflection and personal growth, healing discourse has top priority of the current value. However, in this process, criticism of the era issues and social structural factors are fundamentally excluded. People accepted healing discourse actively, decided empowering self by reflection and remor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rack and specificity in the dominant reception discourse likewise some subjects criticized that there is no realistic consolation, exposed the antipathy to the older generation, denied the way of problematized objectification. But this is a partial denial about healing as concrete technology, not fundamental resistance about neoliberal orders.

KEYWORD healing discourse, governmentality, politics of emotion, neoliberalis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3S1A5A8023015)